

데스크사각



김미은
편집부국장 겸 문화부장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 시간. 기립 박수 속에 배우들이 나와 인사를 하는데, 젊은 남자 배우 한 명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 1980년 현장에서 죽은 친구의 이름을 외치며 역시 도청에서 최후를 마친 야학생 역할을 한 배우였다. 교련복 차림의 그는 눈이 벌개져 있었다. 꾸벅 인사를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서 눈길을 땔 수 없었고 같이 울컥하기도 말았다. 이날 출연자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다. 혼자 생각해 봤다. 저 배우의 눈물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지난 주말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 5·18 소재 뮤지컬 '광주' 공연 현장. 서울·전주 등에서 50여 차례 상연된 후 광주로 이어진 무대는 '80년 오월' 마음 따뜻한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노래와 이야기로 풀어냈다.

젊은 배우의 눈물을 보고 있자니, 몇 년 전 마주했던 중년 배우의 눈물도 떠올랐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고선웅이 연출했던 오월 연극 '푸르른 날에' 뒤풀이 현장에 서였다. 대학로에서 활동 중인 50대 중반의 그는 광주에서 첫 공연을 마치고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줄곧 눈물이 흐르더라고 했다. 길을 걸으며 만나는 광주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 보이고,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2011년 초연 때부터 참여했으니 이미 100번도 더 넘게 출연한 작품이었지만, 광주 공연은 배

당신의 입술로 더 많은 '오월'을 들려주세요

데탕 배우에게도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 듯했다.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였다. 모두들 오월이 광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길 늘 염원했기에, 그 어느 해보다 많은 행사가 기획됐다. 문화예술계도 여러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타격을, 그만큼 기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말았다. 전국에서 모인 518명의 시민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구스타프 말러의 장엄한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하는 광경과, 폴란드 크라쿠프 스타리 국립극장이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각색한 '더 보이 이스 커밍'(The Boy Is Coming)을 만날 수 없었던 점은 지금 생각해도 못내 아쉽다.

배우들이 흘린 저 눈물의 의미는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계의 움직임은 간간이 이어졌다. 전시 중에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별이 된 사람들'(2021년 1월31일까지) 전시 인상적이었다. '예상 가능한 뻔한 작품'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석과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마음에 와 닿았다. 또 생태·환경·소통 등으로 담론을 확장시키며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 낸 점도 흥미로웠다.

5·18 40주년 기념식에서 선보인 '내 정은 청산이오'라는 영상 속의 '노래'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나를 붙잡지 못한 걸 후회하지 말아요/ 날 기억해 주는 것 그걸로 되었소/ 언제 우리 웃으며 또 만날 건지/ 그때까지만 그대여 부디 잘 계시요." 윤상의 '달리기' 등을 작사한 박창학이 가사를 쓴 이 노래는 가수 정훈희의 청아하고 아련한 목소리에 실려 긴 여운을 남긴다. 영화 '기생충'의 음악감독 정재일이 편곡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선율과 그가 직접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로

감동을 더한다. 인디언 구전 시를 번역한 가사에 작곡가 김호근이 멜로디를 쓴 '내 영혼 바람 되어'는 "그 곳에서 울지 마오 / 나 거기 없소"로 시작되는 노랫말이 인상적인 곡인데, 세월호 추모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정훈희의 노래도 앞으로 그렇게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음원이 널리 보급돼 오월에는 물론이고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사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곡으로 '언제까지나' 들려지고, 불러지길 소망해 본다.

뮤지컬 '광주'와 정훈희의 노래

'오월 광주'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뤄질 것이다. 오월 작품을 제작한 이들을 만나 보면 드는 소회가 있다. 시대와 삶의 현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술가들에게 오월은 '영원한 숙제'라는 생각이다. 또한 광주 사람들에겐 어느덧 무덤덤한 일상처럼 느껴지는 '5월'이, 외지 예술가들에게는 한없는 정열함과 무게감으로 다가가는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 어찌 됐든 앞으로 펼쳐질 오월 이야기는 항쟁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거나 너무 극적인 서사로 나아가기보다는, '보편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는 여백이 많은 작품, 사람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작품으로 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해 본다.

다시, 그날의 뮤지컬 '광주' 공연 현장. 이날 무대가 마지막 출연이었던 어느 여배우가 커튼콜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작품을 준비하고 무대에 올리면서 내 입술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생각했다."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다. "당신들의 입술로, 당신들의 몸짓으로, 당신들의 노래로, 당신들의 소설로, 당신들의 그림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코로나 시대의 대안 '귀농 귀촌'

다. 논과 밭에서 작물을 돌보고, 자연 속에서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 실제 코로나 확산 이후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나온다.

생각해 보면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산업화를 위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하여 수출 주도형 산업 경제를 이루었다. 그 결과 도시에 몰린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잃게 되고, 바쁜 생활에 지쳐 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살 집도 장만하기 어려워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다. 반면 농촌은 노인들이 대부분으로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농약과 환경 오염으로 심각한 환경 파괴에 직면해 있으며, 식량 자급률도 낮아 먹거리가 불안정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귀농·귀촌 정책에 눈을 돌릴 때가 왔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시도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남도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더 적극적으로 귀농 귀촌 정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반복되는 바이러스의 위기는 대도시 안에서 주택 정책과 일자리·저출산 극복 정책, 청년 취업 정책 등을 펼친다고 한들 백악이 무효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긴급 지원 자금 등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지원 정책은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과감한 정책의 전환으로 광주와 전남의 농

촌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지원을 하는 데 광주광역시가 나설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도가 통합될 것이라면 광주광역시가 이를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정보화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정보화를 유도하고, 도시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과감한 로컬 푸드 유통 시장을 뚫을 수 있다.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농촌 체험 관광을 육성하는 사업을 현지 농민들과 함께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농촌의 주택이다. 농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며 정착할 수 있는 '농촌형 공동 주택' 보급 정책을 확대하여 주택 구입이 쉽도록 주어야 한다. 그 공동 주택 앞에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키친 가든 형식의 '공동체 먹거리 맛있는 정원'을 조성한다면 손쉽게 생태적인 삶을 누리면서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다.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생태 농업의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들을 교육하고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 공동체를 구현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또한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의 우선순위에 귀농·귀촌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루어 근본적인 대전환을 꾀해야 희망이 있다.



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마침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천 명을 넘어섰다는 뉴스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밭크 사육장에서 코로나 변종이 발생해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의 모든 밭크를 살처분했다고 한다. 이러한 변종 코로나를 현재 개발 중인 백신들이 막을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 도시인들은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주민들을 만나도 마스크를 쓴 채 정적만 흐르는 경우가 많다. 카페에서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조차 어렵다. 식당에서는 음식이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사람을 촬영해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도시의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며 빈사지경이다. 아이들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서로 말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한 채 한 해가 지나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촌의 모습은 그래도 여유가 있

기고

광주 청년 예술가들 왜 사라지고 있는가

청년 예술가들의 취업난은 일반 청년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 가까스로 취업했다라든 편이점·식당 등에서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이다. 간혹 있었던 초·중학교의 예술 동아리 강사 일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실상 끊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 인해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있으며 예술인들에게도 일회성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필자는 오늘 예술을 전공한 청년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대책을 호소하고자 한다. 예술계 대학 졸업자는 통계마저 파악이 어렵고 그들이 전공한 분야 외에 공장·회사 등 어디에도 그들을 위한 일자리가 전무한 상황이다. 전공을 버리지 않는 한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다. 유학을 다녀와도 설 무대나 일자리가 없는 것은 자기 전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특유의 공적 예술단체인 시립예술단들이 전국의 시 단위에는 대부분 있다. 하지만 기존 단원들이 명예 퇴직보다는 정년을 거의 채우는 추세이고 신규 모집은 줄어 단원 수도 감소 추세다. 한번 들어가면 거의 평생 직장의 준공무원 구조이다.

예술은 빠르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개인 수업을 받아 대학을 가기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받아 오로지 그 공부한 것으로 대학을 진학한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의 기회가 거의 없

다. 대학에서는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데 교육부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려고 한다. 조만간 광주·전남의 예술계열 중·고교나 대학들은 문을 닫거나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광주는 문화 예술 도시의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 문화 예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10·20년 후에는 문화 예술 기량을 갖춘 고급 인력들은 씨가 마를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억제하거나 바로 잡으려면 타 지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청년 합창단, 청년 오케스트라, 청년 연극단, 청년 무용단 등을 창단하여 그들이 전공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시 예산으로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술 단체를 창단하고 그들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거나 연주회 수익금을 나누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길이 열리면 청년 예술인들은 이들 단체를 버팀목으로 삼아 예술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시 예산에도 한계가 있음은 잘 알고 있다. 문화 예술 단체별 예산을 쪼개고 또 쪼개서 최소한만이라도 세워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 정도로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경제 한파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점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社說

김종인 '대국민 사과'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와 관련, 당시 집권 여당이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공식 사죄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며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公求修整)을 몸서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함의 자세로 지속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하였다"라고도 털어놴다. 김 위원장은 "쌓여 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국민 사과문'에서 사과·사죄·용서·반성과 같은 단어만 10여 차례나 언급했다. 사과문을 읽는 도중 잠시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김 위원장이 과거 집권 여당으로서의 잘못을 사죄한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사죄를 놓고도 국민의힘 당내에서 여전히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우리공화당 등도 즉각 사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당내 반발을 잠재우고 극우 세력과 단호히 결별함으로써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과태료 면제받은 의원·공무원 조사 철저히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단속 자료를 무더기로 임의 삭제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면제 대상에는 공무원들과 가족·지인 뿐만 아니라 서구의회 의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잇따라 서구청 환경교통국 교통지도 팀의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정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팀은 이 과정에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정형 및 이동형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위반 차량 자료 중 직원들이 임의 삭제한 228건의 단속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무려 150여 건의 지료가 임의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감사 팀은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면담 조사를 벌여 6명의 공무원으로부터 직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단속 기록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차량 번호 대조 결과

100건이 넘는 사례들이 서구의회 의원들의 청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다. 당연히 엄격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필수적이다. 한때 담당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자의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해 준 것이다.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욱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고차 4단원의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일삼은 것은 그 자질을 의심케 한다.

서구청은 4년 전에도 구체적인 증거 자료 없이 공무원들의 과태료 136만 원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특혜성 과태료 면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번만큼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뜻이 비슷한 단어의 사용법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워낙 의미가 비슷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힘든 낱말들이다.

'운명'과 '운용'도 그런 단어 중 하나다. 둘 다 '무엇인가를 움직여 나간다'는 의미이지만 사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비슷한 뜻의 단어를 유의어라고 하는데, 문맥을 통해 의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운명은 학교·회사·대회 등 조직이나 기구와 같은 말과 어울릴 때 사용한다. 운용은 기금·예산·물품 등의 낱말과 어울려 쓰인다.

유의어 사용법

'보존'과 '보전'도 헷갈리는 단어다. '무엇을 지키다'는 의미는 같지만 보존에는 그냥 놔두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대상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비해 보전은 현재 상태를 지켜서 앞으로도 같은 상태에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영토는 '보전'하고 문화재는 '보존'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개발'과 '계발'도 문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태를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개발은 단지 상태를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지만 계발은 잠재된 있는 속성을 더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개발은 기술·경제 등 주로 물질적인 것에 사용하고 계발은 능력·재능 등 인간의 속성을 발달 때 사용된다.

최근 '신문(新聞)'과 '심문(審問)'의 사용법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계위원회에서 때아닌 논쟁이 일었다. 둘 다 '묻다'라는 뜻인데 법조계에서 말하는 신문은 '사실관계를 물어 조사하는 절차'이며, 심문은 '피의자에게 의견을 밝히게 하는 절차'로 해석한다. 따라서 신문의 주체는 법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모두가 되지만 심문은 오직 판사만 가능하다.

그런데 검사징계법에 는 심문이란 용어가 명기된다는 의미는 같지만 보존에는 그냥 놔두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대상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비해 보전은 현재 상태를 지켜서 앞으로도 같은 상태에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영토는 '보전'하고 문화재는 '보존'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개발'과 '계발'도 문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태를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개발은 단지 상태를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지만 계발은 잠재된 있는 속성을 더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